

SKC, 타이완 PET필름 공략 “성공”

SK그룹, 수출 드라이브 전략 ... SK에너지도 사상 최고 수출실적 달성

SK그룹이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 줄어든 내수를 수출로 만회하며 수출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다.

5월4일 SK그룹에 따르면, 그룹 주요 관계사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2009년 1/4분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전략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내수중심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있다.

SK에너지는 1/4분기 내수 판매액이 3조42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했으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사상 최고치인 4조680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이자 3분기 연속으로 석유제품 수출액이 내수 판매액을 앞지르는 한편,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7%p 높아졌다.

SKC도 1/4분기 매출액 2553억원 가운데 수출이 1162억원으로 67% 증가함에 따라 수출 비중은 15%p 늘어난 46%를 기록했다.

화학사업 부문에서 해외판매팀을 신설하고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사업 분야에서 타이완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2008년 말부터 추진해온 수출확대 전략이 구체적인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SK케미칼도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4분기 전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65%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K그룹 3사의 1/4분기 수출 비중은 무려 55%를 웃돌 전망이다.

SK그룹 권오용 브랜드관리부문장은 “최대원 회장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성장전략을 강화해온 결과 좋은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04>